

21 |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욥 1:5).

신앙고백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 송 “너 성결키 위해”(새 420장, 통 212장)

기 도 담당자

오늘의 말씀 욥기 1:1~5

성경말씀 경청하기 말씀 해석을 통해 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한 신앙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가 엄청난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순전함에 관심이 있고, 사탄은 욥의 부유함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전한 신앙과 세상의 부유함을 동시에 가진 욥은 성결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욥의 성결한 믿음을 본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 성결한 가정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1절).

2 성결한 가정은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입니다(5절).



성찰하기 이야기를 읽고 질문을 통해 깨달은 것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결에 관하여 고든 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결이라는 현상은 ‘성령의 감염’이라고 할 수 있다. 회심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완전성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염’이 시작된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 그분의 공격을 받는다. 이 공격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철저히 감염시키는 것이다. 바울은 이 감염을 성령의 열매라고 불렀다. 성령의 오심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열매에 대한 열망을 심어 준다. 이 열매의 성장은 회심 후에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긴 행로와도 같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지속적인 순종으로 결실한다. 병균에 감염되면 나는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병균이 주인처럼 활동하게 된다. 나는 철저하게 무력해진다. 이것이 감염의 결과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감염되면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다. 병균이 내 몸의 피를 통해 활동하듯 성령은 나의 영을 통해 활동한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기능을 장악한다. 그런데 병균은 삶을 파괴시키지만 성령에 감염되는 것은 삶을 성화시키고 완성시킨다.” 이처럼 성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거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결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감염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감염되어 우리 자신이 철저히 무기력해지는 과정입니다.

성결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하기 실천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결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지금 우리 가정에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성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나누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봉헌찬송 “성령이여 강림하사”(새 190장, 통 177장)

오늘의 기도와 주기도 기도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한 후 주기도로 마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성결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족을 주장 하소서. 우리 삶에서 취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를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